

피천득의 수필에 나타난 찰스 램의 영향 연구

김미영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한국현대문학 전공

peace6539@hanmail.net

- I. 머리말: 피천득과 찰스 램 문학의 관련성
 - II. 피천득 수필에 나타난 찰스 램의 영향
 - III. 맺음말: 피천득 수필과 찰스 램 에세이의 친연성과 낙차
-

I. 머리말: 피천득과 찰스 램 문학의 관련성

수필가이자 시인이며 번역가였던 금아 피천득(琴兒 皮千得, 1910. 5. 29.-2007. 5. 25.)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10세에 어머니마저 잃은 후 일가 친척집을 전전하며 쓸쓸한 유년기를 보냈다. 서울 경성고보에 다니던 그는 1926년 춘원의 추천으로 상해로 가 토마스 한버리 고등학교(Thomas Hanbury Public School)에서 수학하였고, 1929년 상해 호강대학교(University of Shanghai)에 입학하여 1937년 동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¹ 이후 그는 서울 중앙상업학원의 교원을 거쳐 1945년 경성제대 예과 교수에 임용되었다. 1947년 서울대 사범대로 자리를 옮겼으며, 1954년 하버드대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했고, 1963년에는 서울대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가 되었고 1974년 서울대를 정년퇴직하였다. ‘거문고 소년’이란 뜻의 필명 ‘금아(琴兒)’는 그가 문학의 길을 걷는데 영향을 미친 춘원 이광수가 지어 주었다.² 그는 1930년 4월 7일자 『동아일보』에서 「차츰」으로 등단하였으나³ 수필 「인연」과 「수필」이 중등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수필가로서 더 명성을 떨쳤다. 대표작은 1959년에 시와 수필, 번역시를 묶어낸 『금아시문선』(경문사)을 1969년에 보완하여 펴낸 『산호와 진주-

- 1 그는 신상(紳商: 큰 띠 장수)인 아버지와 서예와 거문고 타기에 능한 어머니 사이의 독자로 태어나 16세이던 1926년부터 27세이던 1937년까지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많은 기간을 당시 ‘동양의 파리’로 불리던 상하이에서 보냈다. 피천득의 상하이에서의 생활이나 상하이가 그의 문학이나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정정호, 「피천득과 상하이: 지지적 상상력」, 『책과 인생』 통권 290호(2018), 56-64쪽 참조.
- 2 유학시절 그는 주요섭·주요한 형제와 친교를 맺었고, 학업 도중 조선에 들러 춘원의 집에서 유숙하거나 금강산에 체류하기도 하였다. 이선주, 「인물기행-피천득: 90에 엄마와 막내딸 못 잇는 가난한 행복」, 『한국논단』 제88권(1996), 124쪽.
- 3 이경수, 「피천득 시세계의 변모와 그 의미」, 정정호 편, 『피천득 문학 연구』(푸른사상, 2014), 127쪽.

금아시문선』(일조각)이다. 이 책으로 그는 1991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⁴ 20세에 등단하여 2007년 98세로 작고한 그는 시와 수필을 각각 100편 정도씩 남긴, 과작(寡作)의 문인이다.⁵

시로 등단하였으나 그의 문학적 여정에 관한 연구는 수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현영은 금아 수필의 서정적 면모에 주목했고,⁶ 김상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금아의 수필들은 ‘은유’를 통해 수필에 시적 자질을 덧입혔다고 평했다.⁷ 이후, 석경경은 피천득의 시에 주목했는데, 그는 금아의 시들이 ‘평명한 이미지’로 ‘언어의 절약을 통해 ‘정서적 여유’를 이끌어낸 드문 예라고 극찬했다.⁸ 또한 이만식은 피천득의 시가 수필적임에 주목하였고,⁹ 이창국은 금아 단시의 특징으로 ‘이야기성’을 꼽았다. 그는, ‘작고

4 피천득선생 화갑기념논총 편찬위원회 편, 「금아 피천득 선생 연보」, 『피천득선생 화갑기념논총』(삼화출판사, 1971), 4-5쪽; 정정호 편, 「피천득 연보」, 『피천득 문학 연구』(푸른사상, 2014), 429-432쪽.

5 피천득은 해방공간에 『서정시집』(상호출판사, 1947)을 냈고 1959년에 시와 수필, 번역시를 모아 『금아시문선』(경문사)을 냈으며 1969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산호와 진주-금아시문선』(일조각)을 냈다. 1976년에는 「수필」을 표제작으로 한 산문집 『수필』(범우사)을 펴냈고, 1980년에는 시와 수필을 분리하여 『금아시선』과 『금아문선』을 일조각에서 냈다. 번역가로서 그는 『셰익스피어 소네트집』(정음문고, 1976)을 출간했고, 1996년에는 이를 샘터사에서 재출간했다. 1993년에는 동학사에서 『생명』이란 시집을 냈으며, 이듬해에는 『삶의 노래: 내가 사랑하는 시, 내가 사랑한 시인』이란 제목으로 자신이 애독하는 외국시 번역집을 냈다. 1996년에는 샘터사에서 수필만으로 『인연』을 출간하였다. 그는 또 자신의 시와 수필을 직접 영역하여 1968년에 『산호와 진주』의 영문판격인 『A Flute Player』를 출간했다. 2001년에는 그의 제자들이 영역한 『Skylark』을 그에게 헌정하였다. 2005년에 그와 특별한 인연이 있던 샘터사가 『인연』, 『생명』, 『내가 사랑하는 시』, 『셰익스피어 소네트 시집』 등 4권으로 구성된 『피천득 전집』을 출간하였다. 이 밖에도 차남 피수영이 2018년에 부친의 수필집 『인연』과 시집 『창밖은 오월인데』, 번역시집 『착하게 살아온 나날』을 민음사에서 출판하기도 하였다.

6 임현영, 「서정수필의 현대적 과제」, 정정호 편, 『피천득 문학 연구』(푸른사상, 2014), 258쪽.

7 김상태(2014), 「피천득 수필의 문체적 발견」, 위의 책, 249쪽.

8 석경경(2014), 「진실의 아름다움」, 위의 책, 46-54쪽.

9 이만식(2014), 「피천득의 순수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강력한 시세계」, 위의 책, 92-102쪽.

소박한 시를 꿈꾼 피천득은 결국 『산호와 진주』라는 조그만 시집 한 권으로 오랜 세월 후에도 바다 속 산호와 진주처럼 소리 없이 빛을 발하는 작가로 남았다고 평했다.¹⁰ 한편, 금아의 시와 수필을 모두 고찰한 정정호는 피천득 문학세계의 키워드로 어린 아이, 여성, 물을 꼽았고, 관통하는 주제로 ‘생명’과 ‘사랑’을 이야기했다.¹¹

호강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30여 년간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시와 셰익스피어 문학을 강의한¹² 그의 이력이 그의 문학에 미쳤을 영향과 관련해서 정정호는 금아의 짧은 서정적 정형시형은 영국 낭만주의 여류시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시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시대문제와 무관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수필세계는 찰스 램의 『엘리아 수필집』에서, ‘정(情)’을 중시하는 문학적 경향은 한국의 춘원으로 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피천득이 자신과 ‘고아의식’을 공유한 윌리엄 워즈워드를 생애적으로 좋아했으며, 특히 워즈워드의 『서정시집』으로부터 문학은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택하고 언어도 현학적이지 않고 소박한 서민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란 인식과 태도를 획득한 것으로 보았다.¹³ 한편, 중국 호강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피천득의 수필관·자연관·아동관을 중국의 산문가 빙심(冰心)의 그것과 비교한 호박은 두 작가는 조실부모하였기에 고아의식에서 비롯된 문학세계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모성과 관련해서 피천득은 어머니에 대한 자연적 사랑에

10 이창국(2014), 「시인 피천득」, 위의 책, 66-77쪽.

11 정정호, 「금아의 시세계」, 『산호와 진주: 금아 피천득의 문학세계』(푸른사상, 2012), 101-105쪽.

12 석징경(대담), 김금주(정리), 「한국 영문학의 어제와 오늘-민족사의 전개와 초기 영문학: 피천득 선생을 찾아서」, 『안과 밖』 제3권(1997), 327-333쪽.

13 정정호, 「피천득과 워즈워스의 시론의 친연성」, 『펜문학』 137호(2017), 341-354쪽. 기타 피천득의 문학에 찰스 램이 영향을 미쳤다고만 밝힌 글에는 윤오영, 「친우 피천득의 수필」, 정정호 편(2014), 앞의 책, 177쪽과 임현영(2014), 앞의 논문, 266쪽이 있다.

초점이 가 있는 반면, 빙심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이상적 사회 건설로 확대되어 사회적인 어머니상의 제시에 이르고 있다며 차이를 지적하였다.¹⁴

피천득은 『산호와 진주: 금아시문선』의 IV장의 「서영이」에서 자신의 인생과 문학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여기엔 엄마와 서영이, 외삼촌 할아버지 등의 친지들과 자신을 스쳐간 추억 속의 몇몇 여인들 외에 춘원, 도산, 도연명, 셰익스피어, 찰스 램, 로버트 프로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가운데 특히 찰스 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유는 열거한 인물들 가운데 찰스 램(Charles Lamb, 1775. 2. 10-1834. 12. 27.)은 피천득이 자신과 가장 많은 공통점을 지닌, 즉, 자신과 가장 흡사한 작가로 꼽은 영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이기 때문이다. 피천득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대학의 예과에서 강의할 때 교재로 사용한 책이 찰스 램과 메리 램의 공저인 『셰익스피어 이야기(Tales from Shakespeare)』(조선 인쇄회사)였다.¹⁵ 당시에는 대학교재로 셰익스피어의 원전을 사용할 만한 현실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는데,¹⁶ 이에 그는 1957년에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에서 램 남매의 이 책을 직접 완역하여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역자서문」에서 그는 “원전의 맛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산문으로 옮기는데 있어 이렇게 잘 된 것은 없다.”라고 말할

14 호박, 「피천득과 빙심의 산문에 나타난 주제의식 비교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2), 68쪽.

15 석징경(대답), 김금주(정리), 앞의 글, 327쪽.

16 셰익스피어 문학은 1900년대 초에 조선에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여 1919년에 찰스 램의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번역되면서 조선에 상륙하였다. 셰익스피어 문학은 근대문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근대 문학과 연극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는 셰익스피어의 원전을 번역할 만한 영문학자나 번역가도 없었고, 주로 희곡 형태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완역본을 사서 읽을 독자층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서울대 영문학과와 교재로도 찰스 램에 의해 해석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신정옥, 「셰익스피어의 한국수용(1): 1906년-1961년까지」, 『드라마연구』 제23호(2005), 21쪽.

정도로 찰스 램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잘 각색하였는데, 램 남매의 『셰익스피어 이야기』에 수록된 20편의 희비극을 피천득은 한국적 뉘앙스를 잘 살려 번역하였다.¹⁷ 그의 노고로 찰스 램의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1950-1960년대 한국 독서계를 풍미한 셰익스피어에 관한 책으로 남았다.¹⁸

피천득은 이밖에도 여러 글에서 찰스 램을 언급하고 있다. 「영국 인포오멀 에세이」에서 그는 영문학적 전통 속에서 ‘포오멀 에세이’와 ‘인포오멀 에세이’를 비교 설명하면서 특히 한국 수필에 해당하는 ‘인포오멀 에세이’의 예로 영국 찰스 램의 에세이들을 꼽았다.¹⁹ 하지만 지금까지 피천득의 문학에 끼친 찰스 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정정호의 것이 전부이다. 이 글은 정정호의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피천득의 문학에 나타난 찰스 램의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정정호가 지적한 수필의 낭만성 외에도 피천득의 문학이 찰스 램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탈정치적 문학관, 어린아이의 시선, 유머감각, 번역에서의 의역을 중시하는 태도 등에서 확인됨을 논증하고자 한다.

II. 피천득 수필에 나타난 찰스 램의 영향

1. 수필관: ‘친구에게 부친 따뜻한 편지 같은 글’로서의 수필

피천득은 『산호와 진주』에 셰익스피어와 로버트 프로스트, 찰스 램에 관한 글을 한 편씩 실고 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17 찰스 램·메리 램 저, 피천득 역,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1957), 1쪽.

18 신정옥(2005), 앞의 논문, 27쪽.

19 피천득, 「영국 ‘인포오멀 에세이’」, 『자유문학』 제3권 6호(1958), 74-75쪽.

독자들에게 꼭 한 번 셰익스피어 작품을 접해보라 권하고 있고,²⁰ 순박한 자연 시인으로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인성과 작품세계를 예찬하고 있다. 하지만 찰스 램의 경우는 자신과 매우 동질적인 인물이자 작가라면서²¹ 이례적으로 강한 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피천득은 자신과 유사성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 아닌,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데, 찰스 램은 자신처럼 키도 작고 말도 더듬는 등,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물로, 다만 정서가 섬세하고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동정을 주는 데 인색하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라 소개한다. 찰스 램은 발작적 정신병을 앓는 누님을 보호하느라 평생 독신으로 지낸 인물이다. 두 번의 청혼에도 끝내 결혼하지 못하였고 작은 로맨스마저 볼품없이 끝나고 만 생을 살면서 그가 누린 작은 사치는 고작 오래된 책과 옛날 작가의 그림과 도자기를 모으는 일이었다. 램의 에세이들에는 그가 여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자신이 거주하던 ‘런던’이란 도시를 매우 사랑한 사람임이 잘 나타나 있다고 금어는 말한다. 「찰스 램」이란 수필에서 금어는 상업이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램이 주변의 소소한 사물들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 『엘리아의 수필』을 냈으며, ‘새끼羊(lamb)’이란 뜻의 자기이름을 매우 ‘고운 이름’이라 여겨서 “나의 행동이 너(이름)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²² 피천득은 찰스 램의 이렇듯 소박한 성정에 강한 동질감과 애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필」이란 글에서 피천득은 자신의 수필관을 피력하는 대목에서 수필가로서 찰스 램을 효칙(效則)해야 할 전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20 피천득, 「셰익스피어」, 『산호와 진주』(일조각, 1969), 225-226쪽.

21 피천득(1969), 「로버트 프로스트」, 위의 책, 231-234쪽.

22 피천득(1969), 「찰스 램」, 위의 책, 235-237쪽.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 보아야 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폴로니아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가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²³

인용문에서 피천득은 수필은 작가 자신을 드러내는 문학이므로 개성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사례, 즉, 개성을 가장 잘 보여준 에세이스트의 예로 찰스 램을 꼽았다. 피천득은 「영국 ‘인포오멀 에세이’」란 글에서 formal essay에 대별되는 informal essay는 personal essay, familiar essay로서 필자가 마치 친구와 같이 우정 어린 독자들에게 보내는 “정다운 편지나 담화”같은 글로서 친밀감이 생명이라 설명하고 있다.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차가 방향(芳香)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과 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 버린다면서 ‘차의 향기’로서 작가의 개성과 스타일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그는 찰스 램의 수필을 예로 들고, 램의 글은 가장 램다울 때 빛난다면서 수필은 쓴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독백’과도 같은 글이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²⁴ 이어 피천득은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로서, “날카롭지 않고 산뜻한 문학”이며,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 때의 무드”가 묻어나는 글로서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글이라 정의한다.²⁵

피천득이 거둬 언급한 찰스 램(Charles Lamb, 1775-1834)은 18세기 말인 177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19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수필가이다.²⁶ 셰익스피어 문학에 관한 책들과 시집, 자전적 소설집

23 피천득(1969), 「수필」, 위의 책, 103-104쪽.

24 피천득, 「영국 ‘인포오멀 에세이’」, 『자유문학』 제3권 6호(1958), 75-76쪽.

25 피천득, 「수필」, 『산호와 진주』(일조각, 1969), 102-103쪽.

등을 출간한 문인인데, 그에게 문학적 명성을 안겨준 것은 ‘엘리아’란 필명을 앞세운 『엘리아 수필집』(1807)이란 제목의 에세이집이었다. 그런데 램은 이 수필집의 ‘발문’격인 「헌사」에서 자신의 산문들이 “저녁상을 불리고 나누는 담소”와 같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책을 “우애가 깊고 현명한 독자”들에게 바친다고 적고 있다.²⁷ 이 부분은 찰스 램의 에세이관이 피력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램은 독자를 우애 깊은 친구에 비유하면서 에세이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누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대화 같은 글이란 자신의 에세이관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피천득의 수필관과 매우 흡사하다.

피천득이 효칙해야 할 수필의 모범적 사례로 든 찰스 램의 『엘리아 수필집』은 정직한 글쓰기의 모범이자, 사사로운 주변 이야기를 재밋게 제시한 책으로 정평이 나 있다. 램은 이 책에서 발렌타인 축일이나 만우절, 제야나 어린 시절에 연극을 관람한 이야기, 런던 거리의 거지나 굴뚝 청소부 이야기, 혹은 하인들에게 들은 마녀 이야기나 꿈 이야기, 주변 친척들

26 찰스 램은 누나 메리와 함께 『세익스피어의 이야기들』(1807)을 펴내 알려지기 시작했고, 1810년 이후 『리플렉터』나 『런던 매거진』에 수필을 발표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그는 1833년에 ‘엘리아’란 예명을 앞세운 『엘리아 수필집』을 출판하여 세계적인 에세이스트로 거듭났다. 런던 법원가에서 서기이자 집사로 일하던 아버지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크라이스트 호스피털’이라는 빈민학교에서 초등부 7년의 교육을 받은 뒤, 10대 후반부터 동인도회사의 회계사무원으로 33년간 일하였다. 그 동안 그는 화이트, 코올리지, 다이어 등과 교우하면서 고전을 탐독하였고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했다. 코올리지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그는 평생 코올리지와 교유하다 코올리지의 사망한 1834년 연말에 사망했다. 누나 메리는 예민하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재원이었으나 정신병을 심하게 앓았다. 램은 메리를 돌보느라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21살이던 1796년에는 메리가 발작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현장을 목도하는 불운을 겪은 후, 그는 그녀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평생 메리를 돌보았다. 사랑에 빠져 청혼한 여성도 있었으나, 그 자신도 정신병원에 6주간 입원한 병력이 있었고, 그 때문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파혼이 되어, 끝내 독신으로 살면서 누나를 돌보았다. 찰스 램 저, 양병석 역, 『찰스 램의 인간과 문학』과 『연보』, 『찰스 램 수필선』(범우사, 2015), 7-9쪽, 168-170쪽.

27 찰스 램 저, 김기철 역, 「헌사: 우애가 깊고 현명한 독자 여러분께」, 『찰스 램 수필선』(문예출판사, 2006), 5쪽.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다. 즉, 그는 심오한 철학적 사색이나 사회적으로 절박한 현안, 정치적인 사건들은 글에서 다루기를 꺼려했다. 이는 피천득도 마찬가지였다. 피천득은 수필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잊을 수 없는 지인들과의 추억담, 생명을 상징하는 자연으로서의 봄(5월) 이야기, 소소한 주변 사물들에 얽힌 일화 등을 글감으로 삼았다. 특히 그는 ‘오월’에 관한 글을 여러 편 썼고, 이를 통해 봄 혹은 젊음을 자주 예찬하였는데, 찰스 램도 그러했다. 『엘리아 수필집』 전체에 흐르는 찰스 램의 의식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증오와 젊음에 대한 예찬이다.

또한 찰스 램은 등단 초기에는 시와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창작하며 작가로서 문학적 표류를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엘리아 수필집』의 성공에 힘입어 에세이란 양식에 정박한 에세이스트였다. 피천득 역시, 등단은 시로 하였으나 문선집 『산호와 진주』의 성공에 힘입어, 중등교과서에 그의 수필들이 수록되면서 수필은 그에게 운명적 장르가 되었고, 그는 한국 최고의 수필가로 한국문학사에 남았다. 찰스 램은 「마녀와 그 밖의 밤의 공포들」에서 원래 자신은 시인을 꿈꾸었으나 “내 분수에 맞는 산문(에세이)이라는 세계 속으로 바로 주저앉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있다.²⁸ 하지만 그의 수필집은 “고아(古雅)한 문체와 유머와 위트와 농소(弄笑) 속에서 인생에 대한 예지와 인정의 온기가 독특한 색조로 발효되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²⁹ 그는 가족이나 친지뿐 아니라 굴뚝청소부 등의 이웃과 런던거리, 고궁, 도자기, 극장, 화랑 등 일상적 소재에서 글감을 찾았으며, 완벽성보다 기형과 우행을 더욱 아꼈고, 메리를 평생 돌본 깊은 연민의 심성으로 결함과 어리석음 투성이인 자신과 주변인

28 찰스 램 저, 김기철 역(2006), 「마녀와 그 밖의 밤의 공포들」, 위의 책, 119쪽.

29 찰스 램 저, 양병석 역, 「찰스 램의 인간과 문학」, 『찰스 램 수필선』(범우사, 2015), 15쪽.

들을 따뜻한 시선에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유머로 포용해 내었다.

실례로 「내 친척」이란 램의 에세이를 보면, 그는 평생 자신을 돌보아준 12살 위 사촌형 제임스에 대해 “자연의 여신이 이 성급한 사촌형을 만들어낸 때보다 더 바빠 서둘러서 불안한 제품을 우그려 붙여 만든 적은 없었을 것이다. …… 그는 웃음을 적대시하는 탁상공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웃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다가도 다음 순간 뜻밖에도 수탉처럼 허파가 터질 것같이 웃어댄다.”라고 묘사한다. 모순에 차 있고 제멋대로인 사촌형이지만 그는 결국 “혈색이 좋은 환한 얼굴을 한 채 걸어오는 그를 만나게 되면 나 역시 즐거워진다.”라면서 죽을 때까지 그가 그 방식대로 변치 않고 살아주길 바란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³⁰ 또 램은 친누나 메리 램을 ‘브리짓 엘리야’라 불렀는데, ‘브리짓 엘리야’가 살림을 맡아주어 자신은 너무도 편안해서 “나로서는 독신생활을 비탄한 나머지 무모한 왕의 후손(공주)과 집을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칠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일이 없다.”라고 적고 있다.³¹ 메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램은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여성의 일체의 장식이라는 것들을 놓치고 말았는데, 그것이 누이에게는 오히려 행복이었다.”면서 “누이는 별로 가리거나 금지를 당하지 않고 옛날 영국 책들이 가득 쌓인 널찍한 방 안에서 어릴 적부터 텅굴면서 그 좋고 싱싱한 새로 돋은 목초를 실컷 뜯어먹었다.”라며 독서를 좋아한 누나를 묘사하였다. 이어 그는 “내 딸자식이 스무 명이 되더라도 꼭 이런 식으로 키울 테다. 그것으로 인하여 딸년들의 혼인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이 가장 안 풀리게 된다면) 하늘 아래 제일가는 노처녀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점은 장담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30 찰스 램 저, 김기철 역, 「내 친척」, 『찰스 램 수필선』(문예출판사, 2006), 149-151쪽.

31 찰스 램 저, 김기철 역(2006), 「하드퍼드셔의 매커리 엔드」, 위의 책, 156쪽.

메리가 때로는 동생인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도 굳이 책을 읽는 버릇이 있어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경우가 많았지만, “누이는 한결같이 어려운 일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이 즐거울 때는 반드시 그 즐거움을 세 곱으로 불러준다.”라거나, 브리짓 누나와 자신의 남은 생존 기간을 한 덩어리로 몽쳐 다시 똑같이 나누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메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그가 정신질환이 있는 메리를 돌보아야 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메리가 한날한시에 사망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램은 이를 매우 따뜻한 방식으로 피력하였다. 램은 메리와 함께 하트퍼드셔 매커리 앤드의 아름다운 전원을 산책하던 때를 그리며 병약했던 어린 시절에도 그를 돌봐주었고 못난 어른이 된 후에도 자신은 그녀의 손길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기도 하였다.³²

이렇듯 램이 메리 누나를 ‘브리짓 엘리야’라 칭하며 그녀와 지낸 삶을 기록한 산문들을 보면, 마치 피천득이 딸 ‘서영이’와 지낸 날들을 담은 「찬란한 시절」, 「서영이에게」, 「어느 날」, 「서영이」, 「서영이 대학에 가다」, 「서영이와 난영이」, 「내가 사랑하는 생활」 등에서 읽히는 깊은 애정과 상호 돌봄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예컨대 피천득은 「내가 사랑하는 생활」에서 “다른 사람 없는 방 안에서 내 귀에다 귓속말을 하는 서영이 말소리를 좋아한다. ……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라며 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따뜻한 진술에 담아내었다,³³ 찰스 램과 피천득의 산문에는 이렇듯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받쳐준 여성에 대한 따뜻함, 고마움, 연민과 애정, 존경의 마음이 배어 있다.

32 찰스 램 저, 김기철 역(2006), 위의 글, 160-164쪽.

33 피천득, 「나의 사랑하는 생활」, 『산호와 진주』(일조각, 1969), 242-243쪽.

2. 글감과 톤: 탈정치적 주제와 어린 아이 감성의 맑은 톤

찰스 램은 에세이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취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에 관심이 많아 이들에 관한 산문도 꽤 여러 편 발표했다. 그는 「기혼자의 거동에 대한 미혼남자의 불평」이란 글에서 “어린이의 천성이란 진정 중요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단순한 부속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기분에 따라 사랑을 받는다든지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들도 어른과 똑같이 그들 독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하여 어린 아이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³⁴ 피천득은 자신에게 중국 유학을 권했던 춘원의 파란만장한 삶을 근거리에서 지켜보았으며, 찰스 램의 수필을 좋아했다. 피천득이 수필들에서 탈정치적, 탈사회적이며 심지어는 탈성년(?)적인 어린 아이의 맑고 순수한 심성과 시각으로 사물과 자연, 인간을 바라보게 된 데에는 대일협력과 관련해서 겪은 춘원의 어려움을 근거리에서 지켜본 사실과 정치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 찰스 램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천득이 자신의 문학에 정치적인 주제를 취급하지 않으려 했고 또 성년적인 세계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음은 그의 시 개작과정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上海風景」이란 시를 『抒情詩集』(1947)에 수록했다가 『생명』(1975)에 재수록 할 때 제목을 「1930년 上海」로 바꾸었다.³⁵ 또 창녀가 저녁 한 끼 사주면 몸을 팔겠다고 한 2연과 “뭇솔리니 같이 생긴 양피즈가 할딱거리는 조롱말 같은 활포차군을 패패디 뛰라고 재촉하드라”라는 4연을 삭제하였다. 「생명」이란 시도 『서정시집』(1947)에서는 “억압의 울분이 풀

34 찰스 램 저, 김기철 역(1969), 「기혼자의 거동에 대한 미혼남자의 불평」, 위의 책, 66쪽.

35 이 시는 『산화와 진주』(일조각, 1969)와 『금아시선』(일조각, 1980)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길이 없거든/北韓의 蒼空을 바라보라던 그대여”(39쪽)라고 했던 1연을 『생명』(1975, 68쪽)과 『금아시선』(1980, 74쪽)에 재수록하면서는 “드높은 창공을 바라보라던 그대여”라는 식으로 단순화하였다. 즉, 그는 억압, 율분, 북한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성년의 냄새가 진한 대목과 정치적인 부분을 제거한 시 개작과정은 그가 자신의 시세계를 탈정치적이며 어린 아이의 순수한 심성 같은 맑은 서정의 세계로 의식적으로 제한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글감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들인 자연의 아름다움, 봄이란 계절의 상큼함, 여성적인 것의 가치, 맑고 순수한 동심, 따뜻한 인간의 심성, 소소한 삶의 즐거움, 취미와 가족에 등을 취하고, 이를 어린 아이 같이 순수하고 맑은 톤으로 담아냈다. 대표 작품집인 『산호와 진주』라는 제목처럼, 그는 자신의 글이, 거창한 무언은 아니어도, 작지만 영롱한 보석인 ‘산호’와 ‘진주’처럼 영원히 빛나길 희망하였던 것이다.

찰스 램과 금아가 산문에서 다룬 주제는 보통사람들의 소소한 주변사였다. 찰스 램의 「오래된 도자기」란 글을 보면, 생활의 여유가 생긴 노년기에는 젊고 가난했던 시절, 벼들과 치열하게 공방하며 느꼈던 짜릿한 행복은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대신, 오래된 도자기인 중국 찻잔에 그려진 그림을 감상하는 등의 일상적인 소소한 즐거움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와 유사한 분위기의 피천득의 수필에는 「나의 사랑하는 생활」, 「가구」, 「초대」, 「선물」, 「뗏」, 「만년」, 「비원」 등이 있다. 이들에서 피천득은 생활 속에서 누리는 소소한 일상적 여유로움에 대해 전하고 있다. 또한 찰스 램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반감이 매우 강한 편이었다. 램이 만 45세에 쓴 「제야(除夜)」란 에세이를 보면, 그는 한 해가 가는 것보다 새로운 한 해가 오는 희망을 노래하고자 애쓴다. 원래 자신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즐기지만, 점점 세월을 의식하는 나이가 되고 죽음에 한발 가까워져 가는 공포를 느낄수록 그는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언제나 즐거움은 행운을 불러들이고/재앙도 감미롭게 바꿔주는 법”이라 노래하며 미래에의 희망을 품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베틀의 북통이 지나가듯’ 시간을 기꺼이 보내버릴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비유에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 죽음이라는 쓰디쓴 약이 달콤해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영원 속으로 유유히 실어가는 조수에 실려가고 싶지 않다. 나는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의 행로가 싫다. 나는 이 푸르른 대지며 도시와 시골의 풍경을 사랑한다. 설명할 수 없는 전원의 고독, 도시 거리의 달콤한 안정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이곳을 내가 영원히 살 곳으로 삼고 싶다. …… 태양과 하늘, 시원한 바람, 홀로 걷는 산책, 여름휴가, 푸른 들판, 고기와 생선의 맛있는 국물, 친구와의 어울림, 유쾌한 술잔이며, 촛불이며, 노변의 정담, 순진한 자랑이며 농담들이며 빈정대는 이야기, 그것까지도 ……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함께 사라지는가?³⁶

피천득도 「신춘」, 「이른 봄」, 「봄」, 「오월」 등의 수필에서 계절로서의 봄과 인생의 젊음을 예찬하고 있고, 「워터 스키」나 「여성」, 「모시」에서도 자연스런 청년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거나 자신의 젊은 시절에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피천득은 젊음과 봄, 신록과 아이, 여성을 예찬하였는데, 특히 그는 “참다운 여성의 미는 이른 봄 같은 밝고 맑은 생명력에서 오는 것”이라며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예찬하였고,³⁷ 찰스 램과 마찬가지로 「봄」이란 수필에서는 나이 들면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하지만 기실 그것은 “무기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며 “무디어진 지성과 둔해진 감수성에 대한 슬픈 위안의 말”일 뿐이라며 늙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³⁸ 하지만 「송년」이란 수필에 이르

36 찰스 램 저, 양병석 역, 「제야」, 『찰스 램 수필선』(범우사, 2015), 51-52쪽.

37 피천득, 「여성의 미」, 『산호와 진주』(일조각, 1969), 128쪽.

면 피천득은 노년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노년기의 삶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³⁹

평생 미혼으로 산 찰스 램이 문학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특히 관심이 갖게 된 데이는 절친이었던 코울리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⁴⁰ 찰스 램은 코울리지가 사망하자 상심하다가 6개월을 채 못 넘기고 사망했을 정도로 코울리지와 각별한 사이였다. 그런데 코울리지는 윌리엄 블레이크와 워즈워드와 더불어 낭만주의 문학가로서 ‘동화’라는 장르를 개척한 인물이었다. 어린이는 어른이 갈 수 없는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들이 동화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라 믿었던 낭만주의 문학가들은 어린이를 위해 상상력에 기초한 ‘동화’라는 장르를 개척하였다. 찰스 램은 코울리지와의 교류를 통해 낭만주의 문학가들과 견해를 같이했고, 결국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어린이용 버전으로 개작한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을 펴냈다. 찰스 램은 어린이들이 낯설어하는 희곡 양식을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로 바꾸었는데, 이 책에서 그가 가장 중시한 것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어린이들을 동화의 세계로 이끄는 일이었다. 이에 반해 찰스 램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을 쓴 누나 메리 램은 ‘상상력’ 보다는 어린이 교육을 목적으로 ‘교훈성’에 중점을 두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어린이용으로 개작하였다.⁴¹ 피천득은 이 책을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교재로 오랫동안 활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⁴² 스스로 이 책을 완역

38 피천득(1969), 「봄」, 위의 책, 114쪽.

39 피천득, 「송년」, 『금아문선』(일조각, 1980), 250-252쪽.

40 김기철, 「작품 해설」, 찰스 램 저, 김기철 역, 『찰스 램 수필선』(문예출판사, 2006), 202쪽.

41 임근순, 「〈셰익스피어 이야기〉에 나타난 찰스 램과 메리 램의 이중적 각색 태도」, 『영어영문학』 59권 4호(2013), 596쪽.

42 석징경(대담), 편집자(정리), 「한국 영문학의 어제와 오늘-민족사의 전개와 초기 영문학: 피천득 선생을 찾아서」, 『안과 밖』 3권(1997), 327쪽.

하여 『웁스피어의 이야기들』(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1957)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셰익스피어 이야기들』에 나타난 찰스 램의 어린이의 순수함과 감성, 시각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태도는 피천득의 수필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성과 맑은 시선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램과 피천득은 모두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예찬하는 산문들을 많이 썼다. 예컨대 램은 「나의 첫 연극 관람」이란 글에서 어른을 따라가서 6살도 채 못 된 나이에 연극 〈아닥사스다〉나 〈장원(莊園)의 마님〉, 〈세상 길〉, 〈로빈슨 크루소〉을 보았던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마술 같고 신비스런 표상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는 체험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토로하면서 자신은 “어렸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이해하는 것이 없었고, 분별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느꼈고, 온갖 것을 사랑했으며, 세상 모든 것에 경탄했다.”고 술회하였다.⁴³

피천득 역시, 「찬란한 시절」이란 수필에서 엄마가 살아계시던 자신의 유치원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름답고 순수한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하고 있다.⁴⁴ 또 시 「아가의 오는 길」, 「아가의 꿈」, 「아가는」, 「아가의 기쁨」 등에서는 엄마와 함께 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유아기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듯 피천득의 수필과 시에 나타난 어린 시절, 맑고 순수한 심성과 영혼으로 찬란했던 세계는 찰스 램에게 있어서는 ‘엘리아’의 세계에 해당한다. 즉, ‘거문고(를 잘 타는 여인의) 아이’란 뜻의 피천득의 필명은 실제로 자신이 ‘거문고 아이’였던 시절,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했던 시절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우연히도 찰스

43 찰스 램 저, 김기철 역, 「나의 첫 연극 관람」, 『찰스 램 수필선』(문예출판사, 2006), 38-41쪽.

44 피천득, 「찬란한 시절」, 『금아 피천득 문학 전집1: 인연』(샘터, 2008), 121-122쪽.

램이 자신의 산문집에 붙인 ‘엘리아’란 필명, 즉, 순수한 영혼의 존재였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과 닮아 있다. 찰스 램은 스스로의 자아를 이분하여, 말더듬이에 내성적이고 경박하며 변덕스럽고 또 고집불통에 충고를 싫어하여 받을 줄도 줄 줄도 모른 채 45년을 산 실제의 자신인 찰스 램과 구분하여 그런 현재의 자신과 관련이 없는, ‘어린 (시절)의 도련남’에 해당하는 순수한 존재였던 시절의 자신을 ‘엘리아’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이를 표제에 넣어 자신의 에세이집 제명을 『엘리아 수필집』이라 하였다.⁴⁵ 그는 이 책에서 과거에 심취하기를 병적으로 즐기는 자신을 누군가 비난하면 스스로는 ‘엘리아’라는 환상의 구름 속으로 숨어버리겠노라 말하기도 하였다.⁴⁶

찰스 램의 「굴뚝 청소부 예찬」은 굴뚝 청소부 가운데서도 ‘어린’ 청소부를

45 찰스 램의 「꿈속의 아이들: 하나의 환상」의 내용은 매우 독특하다. 여기엔 ‘엘리스’라는 이름의 인물도 여럿 등장한다. ‘엘리스’란 아이도 등장하고, 그 아이의 어머니 이름도 ‘엘리스’이며, 램의 첫 애인이었던 ‘엘리스W-n’도 등장한다. ‘엘리스W-n’은 램의 수필에 자주 등장하는 그의 첫 연인 ‘앤 시먼스’의 가명이다. 램의 아버지의 이름은 ‘존’이고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였다. 그런데 이 수필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존’(일명 제임스 엘리아)은 맥락상 램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상적으로 서술된 이 이야기에서 화자인 ‘나’는 현재 총각신세인 램 자신인데, ‘나’는 안락의자에서 잠깐 잠이 들었고 그때 꿈 이야기가 수필의 중심서사이다. 꿈속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증조모인 필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야기의 초반에 화자는 그 아이들을 ‘내 어린 것들’이라 표현하는데, 그들 중에는 어린 엘리스도 있는데, 그 엘리스의 엄마도 엘리스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엘리스의 아이도 아니고 당신의 아이도 아니며 바트럼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한다. 바트럼은 찰스 램의 첫 애인인 ‘엘리스W-n’이 결혼한 전당포업자이다. 김기철, 「찰스 램과 메리 램의 짧은 전기」, 찰스 램·메리 램 저, 김기철 역, 『셰익스피어 이야기』(현대지성사, 1998), 340쪽. 주목할 부분은 찰스 램의 필명인 ‘엘리아’가 그의 첫 연인 엘리스와 관련된 이름이란 점이다. 피천득은 ‘금아’란 호를 사용하였고, ‘금아’란 거문고(를 타는 여인의) 아이란 뜻으로 춘원이 붙여준 필명이다. 즉, 찰스 램의 필명인 ‘엘리아’는 그의 연인이었던 ‘엘리스’의 남성형 이름에 가깝고, 피천득의 호인 ‘금아’는 그의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어, 양자가 모두 가장 사랑한 여성과 관련된 필명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6 찰스 램·메리 램 저, 김기철 역(1998), 위의 글, 50쪽.

예찬한 글이다. 램은 가난한 집 철부지 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소리를 종달새의 지저귐에 비견하고, 굴뚝 청소로 검댕이를 뒤집어 쓴 채 하얀 빵을 뜯어먹느라 하얀 치골과 치아를 드러낸 어린 청소부들의 모습을 '기분 좋은 파격'이라 묘사하고 있다. 램은 어른들에게 어린 굴뚝 청소부들에게 아낌없는 적선을 당부하는데, 그의 벗인 화이트는 굴뚝 청소부 아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램은 어린 시절부터 험한 노동을 해야 하는 신고(辛苦)의 운명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어린 청소부들에게서 “철학도 가르쳐주지 못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적고 있다.⁴⁷

램이 어린이에 관심이 많았음은 그가 어린이용 책을 많이 쓴 사실이 말해준다. 찰스 램과 누이 메리 램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해 쓴 책은 세 권이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1807), 『레스터 부인의 학교(Mrs. Leicester's School)』(1809, 산문 단편모음집), 『아이들을 위한 시(Poetry for Children)』(1809)가 그것들이다. 램은 단독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책 3권을 썼는데, 이는 『마음의 왕과 왕비』(1805), 『올리시즈의 모험』(1808), 『도러스 왕자』(1811)이다.⁴⁸ 그가 쓴 어린이용 책이 그가 성인을 위해 쓴 책 권수보다도 많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책이 찰스와 메리의 공저인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이다.⁴⁹ 찰스 램은 어린 아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았다. 『엘리아 수필집』에 수록된 「만우절」이란 산문에서 그는 “나는 어리석은

47 찰스 램 저, 양병석 역, 「제야」, 『찰스 램 수필선』(범우사, 2015), 73쪽.

48 임근순(2013), 앞의 논문, 599쪽.

49 이 책 발문에서 찰스와 메리는 어린 독자들이 셰익스피어 희곡과 친숙해져 어른이 된 후 원문을 찾아 읽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에는 아름다운 영어의 어취가 돋보이며, 거기엔 “정중함과 온유함과 관대함과 인간미”가 있어 이를 배울 수 있으며, “상상력이 풍성해지고 덕이 깊어지며 온갖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는 생각을 멀리하고 갖가지 아름답고 존귀한 생각과 행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에 읽기를 권한다고 적고 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책들에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는 모범들로 가득 차 있음을 강조하였다. 찰스 램·메리 램 저, 김기철 역, 「머리말」, 『셰익스피어 이야기』(현대지성사, 1998), 6-8쪽.

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작고 사소한 것들,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 거리의 부랑자나 아이들과 부녀자들, 하층민과 직장의 동료들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에 관심이 깊었다.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깊은 동병상련의 정을 드러낸 산문들에서 그는 시대정신이나 사회역사적 이슈를 다룬 정론성 강한 에세이들과는 다른, 잔잔하면서도 진한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다. 그 자신이 낮은 신분과 부족한 학력에 체구도 작고 가녀렸으며 말더듬이기도 하였던 램은 누나 메리의 병원비와 돌봄이란 부담을 평생 안고 살아가면서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자신의 신경증에 대한 불안 속에서 글을 썼다. 그의 에세이에 나타난 약자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은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유럽을 대표하던 몽테뉴나 베이컨과 같은 프랑스의 에세이스트들과 구분되는, 영국 찰스 램 에세이의 고유한 특징은 바로 이런 데서 연원한다.⁵⁰ 그리고 한국 수필가 가운데 피천득의 수필에서 유독 찰스 램 에세이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목도되고 있다.

피천득 문학의 특징으로는 시와 수필이란 장르를 막론하고 짙은 서정성과 간결한 문체, 응축적인 표현,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구성, 탈정치적인 주제, 소소한 주변적 소재나 친지 이야기, 어린 아이 같은 맑은 시선과 작고 섬세한 것에 대한 경사가 자주 거론된다. 예컨대 이명재는 “소박한 동심, 순수, 여성에 대한 사랑”을 금아 수필의 주된 흐름으로 꼽았고,⁵¹ 정정호는 금아 문학의 구성요소로 ‘엄마’와 ‘서영이’로 대표되는 여성의 존재와 인연의 세계, 영원한 소년성, 작고 어린 것의 가치, 배려와 돌봄이란 윤리의식을 들었다. 나아가 그는 결론적으로 금아 문학의 근간을 사랑을 토대로 한 정(情)의 문학으로 보았다.⁵² 이런 금아 문학의 특징들 가운데,

50 맹난자, 「세계문학기행(5): 영국의 서정 수필을 완성시킨 유머와 페이스스의 작가 찰스 램」, 『문예운동』 통권 109호(2011), 385-397쪽.

51 이명재(2014), 「피천득 수필의 기법적 특성」, 정정호 편, 『피천득 문학 연구』(푸른사상, 2014), 239쪽.

탈정치적인 주제의 선택이나 어린 아이 같이 맑고 순수한 톤의 유지 등은 그가 찰스 램의 삶과 문학에 경사한 데에서 연원한 측면이 커 보인다.

3. 기법: 유머 구사와 열거식 서술

수필관이 잘 드러나 있는 「영국 ‘인포오멀 옛세이’」란 글에서 피천득은 ‘인포멀 에세이’로서 수필은 감성에 호소하는 문학으로서, 지성적 위트가 아닌, 감성적 유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³ 「유머의 기능」에서는 유머란 가시가 없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함께 웃게 함으로써 더욱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위트와 달리 날카롭지 않으며, 풍자처럼 잔인하지 않”은 것이 유머의 특징이란 것이다.⁵⁴ 수필에서 그가 실제로 구사한 유머는 독자의 입 꼬리에 미소가 살짝 걸처지는 정도의 것이었다.

예를 들면, 「신춘(新春)」이란 글에서 그는 “얼마 전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문득 들리는 피꼬리 같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는 신선한 웃음소리는 나에게 갑자기 봄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이 이름 모를 여자에게 감사의 뜻을 갖는다.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서 받은 크리스마스 카아드를 들여다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여자라면 경제가 허락하는 한 내가 아는 남학생에게 크리스마스 카아드를 보내겠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만약 명랑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으로 태어난다면,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어 여러 청취자들에게 언제나 봄을 느끼게 하겠다.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고 적고 있다. 이런 대목은 독자를 미소 짓게 한다.⁵⁵ 「너무

52 정정호(2014), 「금아 피천득 수필의 장르적 특성과 주제적 접근」, 위의 책, 269-331쪽.

53 피천득, 「영국 ‘인포오멀 옛세이」, 『자유문학』 제3권 6호(1958), 74-75쪽.

54 피천득, 「유머의 기능」, 『산호와 진주』(일조각, 1969), 246쪽.

많다」란 수필에서는 “하느님께서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후손이 삼십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실 수 없게 되었다. 하나하나를 꼼짝이 생각하고 거두어 주시기에는 우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적고 있다.⁵⁶ 「잠」이란 글에서는 “잠을 방해하는 큰 원인은 욕심이다. 물욕, 권세욕, 애욕, 거기에 따르는 질투, 모략 이런 것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가 많다. 거지는 한국은행 돌층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다. 나는 면화를 실은 추력 위에서 네 활개를 벌리고 자는 인부를 본 일이 있다. 그때 바로 그 뒤에는 고급 자가용차가 가고 있었다. 그 차 속에는 불면증에 걸린 헬썩한 부정 축재자의 얼굴이 있었다.”⁵⁷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박장대소를 유발하는 개그는 아니지만, 피천득 수필의 유머는 글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켜 준다. 이와 관련해서 박혜정은 “피천득의 수필관은 탁월한 인품과 솔직성을 바탕으로 유우머와 위트가 필요하며, 제재는 무한하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야 하고, 속박을 벗어나지만 산만하지 않고 일정한 맥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종합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⁵⁸

유머감각을 중시한 피천득의 수필관은 찰스 램의 에세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찰스 램 에세이의 대표적 강점으로 유머감각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를 혁신하겠다고며 수도인 런던 시내에서 거지를 몰아낸 11차 박해사건을 보며 이를 비판한 「수도에서 거지가 사라지는 것을 한탄함」이란 에세이에는 찰스 램의 유머감각이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깔깔대며 웃게 하는 유머가 아니라 슬그머니 미소 짓게 하는 종류의 유머감각이다. 램은 자신이 독립된 한 가정의 가장 구실을 못하게 되면,

55 피천득(1969), 「신춘(新春)」, 위의 책, 105-106쪽.

56 피천득(1969), 「너무 많다」, 위의 책, 144쪽.

57 피천득(1969), 「잠」, 위의 책, 262쪽.

58 박혜정, 「피천득 수필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10쪽.

고관의 집 가신이나 아침하는 추종자, 혹은 못 사는 친척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묘미 있는 생활이나 마음의 진정한 고귀함을 위해 거지가 되는 쪽을 택할 것”이라면서 “거지란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하늘 아래 단 하나의 존재”로서 세상의 흥망성쇠에도 관여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라 말한다. 거지는 길바닥에서 속요를 부르는 가수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그 그림 같은 옷차림은 전통 깊은 런던의 간판들 처럼 장식품”이 되며 그들은 “불멸의 교훈, 상징, 기념물”로서 “시계판에 새겨진 좌우명이며 나병원의 설교이며 어린이가 볼 교과서이고 기름기가 번질거리는 시민의 우악스럽게 밀려닥치는 파도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파제”라고 말한다. 또한 램은 그들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이제 어디에 걸려 있는가? 또 그들이 앞세우고 다니던 개는 누가 키워주고 있는가? 를 묻고 “[가]의 감독관들이 쏘아 죽였던 말인가? 아니면 온화한 성격의 교구 목사 B의 제의에 따라 개를 자루 속에 집어넣고 묶은 다음 탬즈 강물 속에 던져버렸단 말인가?”라고 말함으로써 단순한 유머를 넘어 당대 풍속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⁵⁹

피천득과 찰스 램 산문의 또렷한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웃과 주변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잔잔한 유머감각 속에 담아낸다는 것이다. 유머감각은 19세기 영문학사에서, 20세기 한국수필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는 아니기에 이런 사실은 시공을 초월한 두 작가의 산문 사이에 내재된 친연성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찰스 램 에세이의 유머를 보자. 「정년 퇴직자」란 에세이에서 램은 33년간 일한 회계사무소에서 원치 않는 퇴직을 종용받고 결과적으로 정년퇴직자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던 무렵의 자신을 매우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업무에 시달리며 휴가만

59 찰스 램 저, 김기철 역, 「수도에서 거지가 사라지는 것을 한탄함」, 『찰스 램 수필선』 (문예출판사, 2006), 52-54쪽.

손뎀아 기다리던 재직시절에 대해 “나는 책상이 되어 버렸고 책상의 나무토막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앉은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서술한다. 퇴직 후 그는 “나는 30년의 감금생활에서 갑자기 풀려난 바스티유 감옥의 수인” 처럼 되었는데, “나는 주체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의 시간을 수중에 넣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시간에 궁한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서 거창한 수입이 있는 처지로 갑자기 끌어올려진 것”이었다고 묘사한다. 퇴직 며칠 후 사무실에 들른 그는 자신의 책상과 옷걸이가 다른 사람에게 배당된 것을 보며 그리 될 줄 알았지만 그런 현실이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체험한다. 그는 “이별이 진정되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퇴직을 연인과의 이별에 비유한다. 퇴직 후 2주일이 지나자 그는 요일감각도 날짜감각도 잃게 되었고, 매일이 똑같은 날이 된 것을 체험하며, “텅 빈 얼굴, 태평스런 거동”으로 목적도 없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나는 걷는 것이지만 실상 가는 데도 없고 오는 데도 없”는 신세로, “전에 나를 움아매고 있던 사슬들이 마치 내 옷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처럼 정말 그리웠다.”면서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다. 하지만 결미에서 램은 스스로가 ‘상사의 서기’ 따위가 아닌, 은퇴한 한유거사(閑遊居士)로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로 하는데, “일은 끝나 버린 것이다.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마쳤다. 내게 할당된 노력을 마쳤으니 남은 날은 내 자신의 것”이라며 신문을 들어 이젠 기사가 아니라 오페라 공연 사정을 알아보는 등,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맘을 먹는다.⁶⁰ 이렇듯 램의 진솔한 퇴직자 체험기는 읽은 이를 미소 짓게 만든다. 우울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스스로 찾아가는 지혜를 그는 끝내 밝은 톤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60 찰스 램 저, 양병석 역, 「정년퇴직자」, 『찰스 램 수필선』(범우사, 2015), 19-31쪽.

「빈곤한 벗과 친척들」에서는 빈곤한 친척들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데, 특히 빈곤한 여자 친척의 경우 “여자의 궁색에는 거짓이 없다. 멋으로 자기 신분 이하의 옷을 입는 여자는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런 여자 친척은 “자기의 열등에 너무도 민감하여 남의 눈에 드러난다.”고 말한다.⁶¹ 「두 가지 인종」이란 글에서는 인간은 인종을 초월해서 남의 재화를 ‘빌려가는 인간’과 ‘빌려주는 인간’으로 양분되는데, 이들 중 오히려 ‘빌려가는 인간’이 ‘위대한 인종’으로 군자다운 천성에 너그러운 태도를 지녔음을 지적한다.⁶² 램은 남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가서 탕진하는 인간들의 무책임함을 농소 속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빌려주는 입장의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빌려줄 것을 권고한다. 「수도에서 거지가 사라지는 것을 한탄함」이란 글에서는 거지나 도움을 청하는 누구에게라도 적선을 베풀라 말한다. 그자가 도움을 얻고자 애원의 구실로 ‘나이 어린 일곱 명의 자식들’을 운운한다면, 진실인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 말한다. 설령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희극배우의 연기를 본 값은 치른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는 가련한 사람을 보고도 돈주머니를 졸라매는 사람은 아마 그 순간 잔돈이 없어서 었을 거라며 끝까지 유머감을 잃지 않고 있다.⁶³

찰스 램 에세이의 또 하나의 미덕은 정직성이다. 램은 「돼지구이에 관한 이야기」에서 자신은 토끼나 꿩고기, 돼지고기 절임 등은 친구들과 선선히 나누어 먹지만, 자신의 입맛에 ‘진미 중의 진미’요 ‘여인과의 키스처럼 강렬한’ 풍미에 먹는 맛이 고통에 가까울 지경의 기쁨인 돼지구이만큼은

61 찰스 램 저, 양병석 역, 「빈곤한 벗과 친척들」, 『찰스 램 수필선』(범우사, 2015), 120쪽.

62 찰스 램 저, 양병석 역(2015), 「두 가지 인종」, 위의 책, 125-126쪽.

63 찰스 램 저, 김기철 역, 「수도에서 거지가 사라지는 것을 한탄함」, 『찰스 램 수필선』(문예출판사, 2006), 60쪽.

벋들과 나누고 싶지 않다면서, “사람이 리어왕처럼 이것저것 다 주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돼지구이에서 그 제동이 걸릴 것이다. 내 개인의 입맛에 각별히 알맞게 운명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축복을 우정이니 뭐니 하는 구실을 붙여 경솔하게 집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모든 진미를 하사해 주신 신에 대한 배은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또 불감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⁶⁴ “나는 귀가 없다.”로 시작하는 「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감상력이 부족한 자신에 관해 유머를 섞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일류 연주자인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벋이 연주하는 찬송가 한곡을 들을 때까지는 거룩한 평온을 느끼며 좋았으나, 그 친구가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를 연주하자 램은 “그 독일 바다 위로는 승전의 행진처럼 저 유명한 아리온인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돌고래 등에 타고 트리톤인 바흐와 베토벤을 양옆에 거느리고 앞장서 나온다. 그리고 그 수가 하도 엄청나서 세어보려면 나도 바다 속 깊숙이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나는 그 화음의 위력에 놀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허둥댈 뿐이다. 그 유향 같은 구름이 나를 짓누르고 재능이 넘치는 내 친구의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이마 위에는 그림자 같은 삼중 왕관이 씌워진다. 그는 교황이 되었다.”면서 자신은 그의 곁에서 이교의 교주가 된 기분이었다고 적고 있다.⁶⁵

『엘리아 수필집』을 보면, 찰스 램이 자주 열거식 서술방식으로 글을

64 찰스 램 저, 양병석 역(2015), 「돼지구이에 관한 이야기」, 앞의 책, 153-166쪽.

65 램과는 대조적으로 피천득은 클래식 음악을 매우 좋아하여 시 「제2악장」에서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악장 / 베토벤 운명교향곡 제2악장 / 브람스 2중 협주곡 제2악장 / 차이코프스키 현악 4중주 제2악장 / 그리고 / 비올라 / 알토는 /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노래했고, 「보스톤 심포니」라는 수필에서는 “하이든 심포니 제1악장은 무지개와도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천득, 「제2악장」, 『금아 피천득 문학전집2: 생명』(샘터, 2008), 116쪽; 피천득, 「보스톤 심포니」, 『산호와 진주』(일조각, 1969), 176쪽.

쓰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예컨대 「오래된 도자기」란 글에는 “나는 ○○을 좋아한다.”라는 서술형태가 반복된다. “나는 오래된 도자기를 유난히 좋아한다. …… 나는 옛 친구를 만나기를 좋아한다. …… 나는 여자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되도록 더욱더 여자다운 표정을 지닌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식이다. 「옛날 교사와 오늘날의 교사」에서는 “나의 독서는 한심할 정도로 산만하고 질서가 없다. …… 과학에 관련된 것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백과사전 한 질 만큼이나 뒤떨어져 있다. …… 나는 천문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 역사나 연대기마저도 맘먹고 앉아 공부한 일이 없다. …… 내 친구는 나에게 유클리드 기하학의 첫 명제를 이해시켜주려 애를 썼다. 그러나 둘째 명제에서는 실망한 나머지 포기하고 말았다. …… 나는 오늘날의 언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식하고…….” 등으로 ‘나는 ○○을 잘 모른다.’ 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⁶⁶ 「오늘의 신사도」란 에세이도 마찬가지이다.

여배우가 신사들에게 야유를 받고 무대에서 쫓겨 내려오는 일이 없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것(신사도의 존재)을 믿을 것이다.

멋쟁이 신사가 생선장수 마누라 손을 잡아 도량을 건네준다든지, 재수 없이 짐마차하고 박치기를 해서 쏟아져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은 사과 장수 아낙을 도와준다면 나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생활면에 격이 낮을지언정 이러한 고상한 행동에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누구 못지않고 일류라고 생각하는 이런 멋쟁이들이 자기가 알려질 리가 없고,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신사도를 실천에 옮길 때, 즉, 예를 들면 어떤 부호 상인의 용무를 대신 해서 길을 나선 여행자가 같은 마차의 위 칸에 타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가난한 여자가 비에 흠뻑 젖은

66 찰스 램 저, 김기철 역, 「옛날 교사와 오늘날의 교사」, 『찰스 램 수필선』(문예출판사, 2006), 19-21쪽.

것을 보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외투를 그 무방비 상태의 여자 어깨에다 걸쳐 주는 것을 본다면, 또는 런던의 어느 극장 바닥 정면 2층 맨 뒷자리에 서서 보던 여인이 애를 쓰다 결국 지쳐 쓰러진 것을 보고 근처에 편안히 앉아 있던 남자들이 그녀의 고통을 조롱하는 일 같은 것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의나 양식이 나아 보이는 사람이 “그 여자가 조금만 더 젊고 예뻐더라면 내 자리로 모실 텐데 ……” 라고 의미심장하게 단언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비로소 나는 신사도를 믿을 것이다.⁶⁷

위의 글에서 램은 “○○한다면, 나는 신사도를 믿을 것이다.”라는 구조의 문장을 반복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열거식 서술법은 피천득 수필에서도 자주 목도되는 기법이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서 피천득은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오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 나는 잔디 밟기를 좋아한다. ……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 나는 진주 빛 비둘기를 좋아한다. …… 나는 이른 아침에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며, 피꼬리 소리를 반가와 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 나는 젊은 웃음소리를 좋아한다. ……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호도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 나는 아홉 평 건물에 땅이 오십 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⁶⁸라며 사랑하는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다.⁶⁹ 그의 대표수필의 대부분이 열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수필창작방식은 이야기성을 지녀 서사적 직렬구성을 보이는 형식과 특정 구문을 반복적으로 나열한 병렬구성 방식이 주류를

67 찰스 램 저, 김기철 역(2006), 「오늘날의 신사도」, 위의 책, 73-74쪽.

68 피천득, 「나의 사랑하는 생활」, 『산호와 진주』(일조각, 1969), 242-243쪽.

69 피천득(1969), 위의 글, 240-241쪽.

이론다. 전자는 「인연」, 「금반지」 등에서 목도되는데, 스토리 중심으로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이 나타난다. 후자는 「나의 사랑하는 생활」, 「수필」, 「여린 마음」, 「구원의 여상」, 「순례」, 「기행소품」, 「초대」에서 선명히 드러나 있다. 대표작 「수필」을 보자.

수필은 청자(靑瓷) 연적이다. 수필은 난(蘭)이요, 학(鶴)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 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마는,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散策)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필의 빛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온아우미(溫雅優美)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 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무늬는 읽는 사람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散漫)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優雅)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⁷⁰

「오월」이란 글에서도 피천득은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

70 피천득, 「수필」, 『산호와 진주』(일조각, 1969), 102-103쪽.

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라며 ‘A는 B이다.’는 형식을 반복하고 있다.⁷¹ 열거식 작법은 그가 좋아하는 대상을 나열하거나 ‘A는 B이고, C이며, D이고 ……」라는 식으로 정의하거나 A를 그의 방식으로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Ⅲ. 맺음말: 피천득 수필과 찰스 램 에세이의 친연성과 낙차

중국 호강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서울대에서 예과와 영문학과 교수로 30여 년간 재직한 피천득은 여러 글들에서 찰스 램의 에세이들을 한국의 수필에 해당하는 인포멀 에세이의 전형으로 고평하고 있다. 또 그는 어린이를 사랑한 찰스 램이 누나 메리 램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어려운 희곡들을 어린이용 이야기책으로 쉽게 풀어 쓴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을 대학에서 영어 교재로 채택하여 오랫동안 사용했으며 1957년에는 이를 번역하여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을 출간해서 1950-1960년대 한국의 셰익스피어문학 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찰스 램과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 문학을 매우 사랑한 그는 『셰익스피어 소네트집』을 직접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천득은 자신처럼 키가 작았던 영국의 에세이스트 찰스 램이 말도 더듬고, 또 정신질환을 앓으면서도 자신보다 좀 더 심하게 정신질환을 앓던 누나를 평생 돌보느라 독신으로 지내면서 독학으로 익힌 글쓰기를 통해 불안한 자신의 삶과는 달리, 유머러스하고 낙천적이며 정직한 시선으로 이웃들과 특히 소외된 하층민과 어린이, 여성들을 따뜻하게 포용

71 피천득(1969), 「오월」, 위의 책, 119쪽.

하는 재밌는 산문들을 쓴 사실에 깊은 존경과 공감을 표하였다.

피천득의 문학에 나타난 찰스 램의 영향은 수필관에서부터 확인된다. 찰스 램은 에세이를 “저녁상을 물리고 나누는 담소 같은” 혹은 “우에 깊은 친구에게 주는 편지 같은 글”로 정의했다. 피천득 역시, 수필은 친구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 같은 글이며, 벗과 나누는 한 잔의 차와 같이 향기가 나는 글이라 말하였다. 또한 두 사람의 산문에는 모두 탈정치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소소한 일상사나 주변인의 이야기가 따뜻한 감성 속에 담겨 있다. 어린 아이나 여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나 글쓰이의 심정을 솔직히 표현한 산문의 정직성을 매우 중시한 점도 공통적이다. 작법에 있어서는 유머감각을 중시한 점, 열거식 서술방식이 공통적이다. 전반적으로 현실과 세계에 관한 따뜻한 시선과 낭만적인 인식, 서정적 서술도 확인되는 공통점이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과 『셰익스피어 소네트집』의 번역에서 드러난 피천득의 의역을 중시하는 번역관 역시 찰스 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천득은 한국어의 미감과 한국인의 정서를 심분 고려하여 작품의 내용을 응축적으로 의역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찰스 램도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에서, 직독직해를 피하고 독자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휘를 선택하고 서사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의역에 육박하는 번역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천득과 찰스 램의 산문에는 배태된 환경의 차이만큼이나 뚜렷한 낙차도 존재한다. 램이 활동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의 영국은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생산력의 증대를 토대로 근대화된 경제 시스템을 갖추어갔고, 법치주의와 시민평등사상이 확산되면서 막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19세기 이후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여 본격적으로 자본주의화의 길을 갔으며 심지어는 제국주의로 발전할 조짐까지 보였다. 동시에 엔클로저 운동에 의한 농민 계층의 몰락과

불결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빈민층의 확대, 아동 노동, 공해 문제 등이 발생하여 한편에서는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과 같이 기계를 파괴하려는 과격한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찰스 램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아동과 부녀자들, 거지나 부랑아 등의 빈민들, 또 자신과 같은 소박한 서민들의 일상을 밝고 재치 있는 시각으로 산문에 담아냈다.

그러나 피천득의 수필은 한국근현대사의 격랑기인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공간의 미군정기, 이어진 한국전쟁과 1960년대 분단현실의 냉전체제기에 산출되었다. 실제로 그는 1960년대 이후엔 새로운 글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수필을 서른여섯 살 고삿길을 넘긴 중년의 문학이라 하였는데, 그의 수필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그만의 삶의 방식이나 취향, 즉, 자기세계의 드러냄이며 이는 결국 자기애의 확인이나 표현에 집중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조실부모하고 16세부터 27세까지 이국땅에서 혼자 낯선 세계에 맞서야 했던 그의 혹독한 운명은 중년을 넘긴 성년의 문학인 그의 수필에서 스스로를 아기의 위치에 두고 아기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거나, 강한 자기애의 확인으로 스스로를 세계로부터 보호하려는 강박적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와 유사하게 고아의식의 소유자였지만 새로운 아버 찾기엔 몸부림친 이광수의 삶이나 문학과 달리, 탈정치적, 몰사회적 문학 속으로 작게 몸을 움츠려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지키고자 한 피천득의 문학은 어린 아이 같은 고운 심성과 맑은 감성의 세계를 보여주었으나,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피천득, 『서정시집』. 상호출판사, 1947.
- _____, 『금아시문선』. 경문사, 1959.
- _____, 『산호와 진주: 금아시문선』. 일조각, 1969.
- _____, 피천득 역, 『A Flute Player』. Samhwa Pub, 1968.
- _____, 『수필』. 범우사, 1976.
- _____, 『금아시선』. 일조각, 1980.
- _____, 『금아문선』. 일조각, 1980.
- _____, 『생명』. 동학사, 1993.
- _____, 『삶의 노래: 내가 사랑하는 시, 내가 사랑한 시인』. 동학사, 1994.
- _____, 『인연』. 샘터사, 1996.
- _____, 안영희 외 역, 『A Skylark』. Samtoh, 2001.
- _____, 『피천득 전집1-4』. 샘터사, 2005.
- _____, 『인연』. 민음사, 2018.
- _____, 『창밖은 오월인데』. 민음사, 2018.
- _____, 『착하게 살아온 나날』. 민음사, 2018.
- _____, 「영국 인포오멀 옛세이」. 『자유문학』 제3권 6호, 1958, 74-76쪽.
- 찰스 램·메리 램 저, 피천득 역,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1957.
- 찰스 램·메리 램 저, 김기철 역, 『셰익스피어 이야기』. 현대지성사, 1998.
- 찰스 램 저, 김기철 역, 『찰스 램 수필선』. 문예출판사, 2006.
- _____, 양병석 역, 『찰스 램 수필선』. 범우사, 2015.

2. 단행본

- 정정호 편, 『산호와 진주: 금아 피천득의 문학세계』. 푸른사상, 2012.
- _____, 『피천득 문학 연구』. 푸른사상, 2014.
- 피천득선생 화갑기념논총 편찬위원회 편, 『피천득선생 화갑기념논총』. 삼화출판사, 1971.

3. 논문

- 맹난자, 「세계문학기행(5): 영국의 서정 수필을 완성시킨 유머와 페이스스의 작가 찰스 램」. 『문예운동』 통권 109호, 2011, 385-397쪽.
- 석징경(대담), 김금주(정리), 「한국 영문학의 어제와 오늘2-민족사의 전개와 초기 영문학: 피천득 선생을 찾아서」. 『안과 밖』 제3권, 1997, 310-339쪽.
- 신정옥, 「셰익스피어의 한국수용(I): 1906-1961년까지」. 『드라마연구』 23, 2005, 9-65쪽.
- 박혜정, 「피천득 수필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선주, 「인물기행-피천득: 90에 엄마와 막내딸 못 잇는 가난한 행복」. 『한국논단』 제88권, 1996, 118-127쪽.
- 임근순, 「〈셰익스피어 이야기〉에 나타난 찰스 램과 메리 램의 이중적 각색 태도」. 『영어영문학』 59권 4호, 2013, 593-617쪽.
- _____, 「피천득과 상하이: 지리적 상상력」. 『책과 인생』 통권 290호, 2018, 56-64쪽.
- _____, 「피천득과 워즈워스의 시론의 친연성」. 『펜문학』 137호, 2017, 341-354쪽.
- 호박, 「피천득과 빙심의 산문에 나타난 주제의식 비교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국문초록

이 글은 금아 피천득 문학에 나타난 영국 에세이스트 찰스 램의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수필」과 「인연」 등의 수필로 한국현대수필사에 남은 피천득은 호강대 영문과 출신으로 램 남매와 셰익스피어의 책을 번역했고 대학에서 오랜 동안 영어와 영문학사, 영시를 강의하였다. 이는 그의 문학에 영문학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피천득은 산문가로서 램을 고평했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램에게 강한 동질감과 존경심을 표명했다. 양자의 산문을 비교해 보면, 수필을 '벗에게 보낸 편지 같은 글'로 인식한 점, 소소한 생활주변사로 글감을 한정한 점, 어린 아이의 순수성과 글쓰이의 정직성을 중시한 점, 유머를 중시하고 낙천적으로 자연과 인간과 물상을 대한 점, 열거식 작법과 따뜻하고 낭만적인 톤에서 둘의 강한 친연성은 확인된다. 의역을 중시한 번역관과 서정적 감성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양자를 배태시킨 시공간의 차이만큼, 둘의 문학에는 낙차도 컸다. 램은 19세기 초 막강한 경제력을 축적한 영국이 제국주의화의 조짐마저 비치던 시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빈민·아동·부녀자·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들의 모습을 따뜻한 유머로 담아낸 반면, 피천득은 식민지와 한국전쟁과 분단체제로 이어진 한국의 격변기에, 서른여섯 중년고비를 넘긴 문학이란 스스로의 수필에 관한 정의를 무색하게 할 만큼 탈현실적 주제에만 몰두하여,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투고일 2018. 12. 20.

심사일 2019. 1. 16.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Pi Cheondeuk(피천득), Charles Lamb(찰스 램), Essay(에세이), 『산호와 진주』(Corals and Pearls), 『엘리아 수필집』(Essays of Elia), 『셰익스피어 이야기』(Tales from Shakespeare)

Abstracts

A study on the Influences from Charles Lamb in the Essays Written by Pi Cheondeuk

Kim, Mee-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e impacts and influences from Charles Lamb, the British Essayist in 19C, in the essays written by Pi Cheondeuk, the famous 20th-century Korean Essayist. Because Pi Cheondeuk had a taste for Charles Lamb's literature, and he had been similar to Charles Lamb's personality, he sympathized with Charles Lamb's poor living conditions. He had translated and published Charles Lamb's Tales from Shakespeare in 1957, Korea. He taught English with this book for 30 yea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ssay by Pi Cheondeuk reveals Charles Lamb's influence in both style and content. For example, his writing style included enumeration, humor, with a juvenile viewpoint, accompanied by a warm, romantic perspective. He also viewed essays as a letter to an intimate friend and preferred to adapt free translation to his work as Charles Lamb. But the gap between the essays of Charles Lamb and Pi Cheondeuk had resulted from the distinctions of their given backgrounds. The essays of Charles Lamb portrayed the poor, the child & women who were alienated from the economic growth during the 19C British Empire, with humor, warmth & optimism. However, essays by Pi Cheondeuk had been written and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ntrol (1910-1945), the liberating Space(1945-1950), and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era after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His romantic perspectives could not avoid being criticized the evading of responsibility from his duty as an intellectual in front of history and the people.